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아름선원의 대행스님께 여
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중로
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
자 알 ● 인터넷: www.hannaum.org 또는 한아름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독 안에서 벗어나세요!

비가 안 오는 대신에 무척 덥죠? 이렇게 날이
긋듯이 더불어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백중(百種)을 지냈는데
백중을 왜 지내야 하는지, 백중이 왜 생겼는지, 그
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현재에 공부
하시는 분들에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
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공부라는 게 무슨 별도로 있
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탄생해서 이 세상에 나와서
사는 게 공부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명이 이
세상에 나오면 불(佛)이요, 나와서 세상 들어가는
걸 배우는 것이 바로 교(敎)라고요. 그러니까
불교가 별다른 게 아니죠. 우리들의 살림살이를
배놓고 불교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어렵게 생
각하지 마시고 간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
렵게 믿지 마시고 간편하게 믿으세요. 내가 움직
거리고 그러는 것이 다 공부니까요. 또 참선이고
요. 마음을 잔잔하게 가라앉히면 그냥 좌선이 되
고, 누워서 보면 와선이 되고, 앉아서 보면 그대
로 좌선이 되고요. 그대로입니다. 일을 하다가
생각을 하면 행선이 되고요, 모두가 그대로 참선
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다보면 마음 안으로 들어
야죠. 바깥으로 내서 믿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서 믿고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다 거기다
가 달기고, 잘했으면 '감사하구나!' 하고, 또 잘
안했으면 '안된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너 아니냐!' 하고 거기다 놓고, 이렇게
곱려가면서 하다보면 말이 자꾸 하고 싶어질 때
가옵니다. 여기서 (가슴을 짚어 보시며) 감응
이 되고 감응이 돼서 좀 지내고 보면 말이 자꾸
하고 싶을 때가 와요. 말이 하고 싶을 때에, 어퍼
한 말을 해야 하느냐? 남이 물어보면 관(觀)하는
도리만 얘기해주고 자기가 이만큼 배웠다고 내

아무리 속이 상해도

내 안으로 놓고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부드럽게 행동을 해야

세우지 말라. 또 그 다음에 이것이 옳은 거라고
내세우지 말라. 이것이 안됐다고 내세우지 말라
이겁니다. 안됐다 됐다, 이게 옳다 그르다, 또 나
는 이만큼 하다보니까 이만큼 갔다, 이런 말은
안해도 자기가 말하는 것을 보면 자기를 내세운
게 되거든요. 이것은 자기가 없는 도리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만약에 바깥으로
끄달리고 자기를 내세우고, 잘됐다 못했다 이것
을 내세우다보면 공부는 풍이랑요. 제자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긴데 그러다보면 바깥
으로 자꾸 끄달리면서 쪼끔쪼끔 가다보면, 자기
가 그만 빈집이 되고, 자기 선장은 간 곳이 없죠.
그러하면 영계성으로써 구차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나는 뭐 일까마는 단전호흡을 한다고
하면서 바깥으로 끄달리고 몸으로 끄달리다 보니
까 몸도 바깥이거든요. 이게, 물질계거든요. 그래
서 바깥으로 끄달리다 보니까 영계가 들려서 아
단인 사람도 있고, 정수리로 뜨거운 김이 올라와
서 커로 들린다고 아단인 사람도 있고, 몸이 떨려
서 아단하는 사람도 있고, 몸을 부지들 못하고 그
냥 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자식들은 아리저리 떠들게 되고 모두 이렇게 되
는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복으로 믿으면서 바깥으로 자꾸 끄달리고
무슨 무슨 부처님을 부르고 이렇게 아주 지극 정
성으로 하는 사람이 영계성에 걸리는 경우도 있
습니다. 이런 부처님이 그러는 게 아니고, 이집 저
집 떠다니고 기웃거리는 그런 영령들이 들어서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영령이 들어서지는도 모르
고, 자기 몸에 있는 자체도 지금 모르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른다면 그냥 아주 간 사람이 되죠.
맞이 간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은 참, 자
기 혼자 그런 것도 뭣하지만 가정이 다 분제가 되
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극히 조심하시라고 하는 것
은 우리가 마음으로 나쁘다 좋다, 밍다 굽다 또는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항상 고
집고 미워하고 '저런 거 그냥 차라리 죽어서 없어
지던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과 생각, 그것이 바로 모
두 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 구업이 되고,
마음으로 하면 의업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
저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부하
는 사람으로서 한층 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바깥에서 닳치는 것, 미운 것 고운 것이 있더라도
'밍다 굽다' 하지 말고 안에다가 '저 사람이 저렇
게 하는 것이 저게 저 사람이 미운 게 아니니까 당
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달기고 부
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해주라고 말을 항
상 하죠. 그래야만이 업이 녹아버린다는 얘기로.

그러는 양반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
게 술을 마시고 그러거나 자꾸 관(觀)하고 부드럽
게 말해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주니까 어느 날
그냥 술도 먹는 게 없어지고 그렇게 가정이 화목
하게 돌아가더라구요. 그 마음을 믿게, 그냥 말을
약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약은 묘이지

세상에 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얼
마 안 남았습니까. 한 월 사는 기간 동안에 그거를
다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요다음에 또 나와
서 고생을 또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극히 조심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요다음 생애 또 나와서 고
생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현실에서 자기 위
로는 부모와 아래로는 자식들과의 연관성을 몰라
라 할 수 없죠. 항상 이렇게 염주가 같이 꿰어 있
는 게 그렇게 꿰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네들
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깁
니다. 빨리 성취를 해야 빨리 그네들도 따라서 성
취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칠석이다 백중이다 하는 문제입
니다. 우리가 칠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절음을
누리고 이렇게 살고 가는 겁니다. 아주 간편하게
생략해서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고 이
렇게 가다보니까 일본 일조만 앞서면 미래입니
다. 일조가 지났어도 과거입니다. 그렇죠? 안 그러
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연방 뒤로 하고서 앞으
로 미래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로 전
진하는 사람들이 지금 촛불을 켜고 칠석을 맞이

나라, 바로 독사로 태어났다면 그제 독사지옥입
니다. 허물을 입었으면 다시는 벗기가 힘들다 이
겁니다. 그 독사의 모습을 벗기가 힘들어서 사람
되기가 어렵다 이런 얘깁니다. 화랑지옥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매일 그제 몇 번씩 태어나면은
또 얼마 안 있어서 죽는 꼴로 들어가고, 불 속으로
들어가고 수십 번 그냥 들어가면서 들어가는데
그것이 어찌 화랑지옥이 아니겠습니까? 또 때로
는 칼로 그냥 산 높을 탁탁탁 쳐서 모두 먹죠? 그
런 것을 볼 때 그게 어찌 갈산지옥이 아니겠습니
까? 그러니까 모두 갈산지옥이니, 화랑지옥이 따
로 있어서가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의 삶 그대로
입니다. 현실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옥
도 하나하나 화랑지옥이니 독사지옥이니 뭐 모두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하고 있고 보고 있고 그러
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지옥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나쁘게 된다더라.'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닙니
다. 현실에 살다가 죽어서 딱 떠나면 미래로 해서
한번 속 들어서 다시 현실로 온단 말입니다. 가셔
는 또 현실로 다시 와요. 한 발 한 발 미래로 다가
가죠. 뭐 미래가 급세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이거든요. 죽이면 그냥 또 그 집안이 폭삭 망하죠.
그제 자식이 부모를 죽인 거와 같죠.

나는 그런 것을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보지
않고 알지 못하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진실치
않은 것은 말을 해서 한테로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부처님께서 아예 금한 겁니다. 말
을 함부로 해서 한테 떨어뜨린다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옳다 그르다 하고 말을 하게 되면 그
말 자체가 한테 떨어진다구요. 그랬듯이 이것은
진실한 말이 아니라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안 하고도 모두 일체 만물들이 다 살고 있
는데 굳이 말을 해서 그릇될 일이 너무 많기 때
문에 묵언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비유컨대 한
가지를 말을 해도 열 가지가 다 그렇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한 가지 얘기하면 그것만 그
러리니 요렇게 생각하신 마세요. 일거수일투족
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내 국내도 말지 못하는 그러한 걸로
취급을 하는 것도 있죠. 그것은 땅속에서 사는 미
꾸라지나 지렁이나 무슨 벌레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꺼리꺼리
모이고 자동적으로 꺼리꺼리 모이죠. 우리 사
람들도 자동적으로 기사는 기사대로 모이고, 상인
은 상인대로 모이고, 교수는 교수대로 모이고 그
러듯이 말입니다. 그건 누가 가라 오라 해서 그렇
게 모이는 게 아니고 차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그냥 분배가 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벌
레모 같 놈은 벌레로 가고, 사람으로 같 놈은 사람
으로 가고, 짐승으로 같 놈은 짐승으로 가고, 이러
게 자동적으로 돼 있다는 얘깁니다. 이걸 누가 가
라 오라 해서 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모이
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니까 억울합니까? 내 한생각이
잘못됐서 행동 하나하나가 잘못되고 이란다면 그

마음 하나 잘 쓰면

자기가 흐뭇해서 좋고

좋은 일 한 번 했으면

자기가 흐뭇하고 좋은 거죠

파보는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뺏아가는 것
도 아닙니다. 집한 거든 못한 거든 다 자기가 하고
자기한테 오는 것이지 누구한테 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 자기는 자기대로 그저 마음 하나 잘 쓰는
데 뭐 그렇게 해로운 일이 있겠습니까? 마음 하나
잘 쓰면 자기가 흐뭇해서 좋고, 좋은 일 한 번 했
으면 자기가 흐뭇하고 좋은 것이지 남이 좋은 것
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옥이 따로 없고, 지옥도 천당도 우리
삶의 보람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지옥고를 당하는
꼴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생선을 놓고 그냥 탁 자
르는 거 보시죠? 그러곤 옛날 같으면 개도 목을
매서 나무에다 매달아놓고는 태웁니다. 발바둥을
막치고 그냥 털이 다 타고 그제 그냥 목숨이 끊어
질 때까지 아무리 발바둥을 쳐도 소용없이 그렇
게 죽습니다. 그냥 목을 턱 잘라서 뜨거운 물에 넣
어 버리죠. 이런 것도 많이 보시죠? 그냥 썩혀 소
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울고불고 발
바둥이를 쳐도 그것은 살 길이 없는 이런 이치죠.
소름 쫓는것들을 그냥 때려서 쓰러지면 울고 발
바둥이를 쳐도 살길이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소
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 모두 자기가 그런 데로 소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고힬를 매서 고힬를 영
영 우는 겁니다. 사람도 자기가 죽어갈 줄은 압니
다. 사람이 모르는 거 아니죠. 자기 고힬를 매서
끌고 갈 때가 온다는 얘기는 알죠. 그런데 어느 때
에 울지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
다른 게 있느냐. 차원이 높고 낮고 이것뿐이지 뭐
가 다르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살생을 쫓게야 주의해라, 죽어 놓은
것도 많은데 생생한 것 먹는다고 그러는데, 허허
그게 됩니까? 그냥 잡아서 먹죠. 그런 것 보면 그

이거든요. 죽이면 그냥 또 그 집안이 폭삭 망하
죠. 그제 자식이 부모를 죽인 거와 같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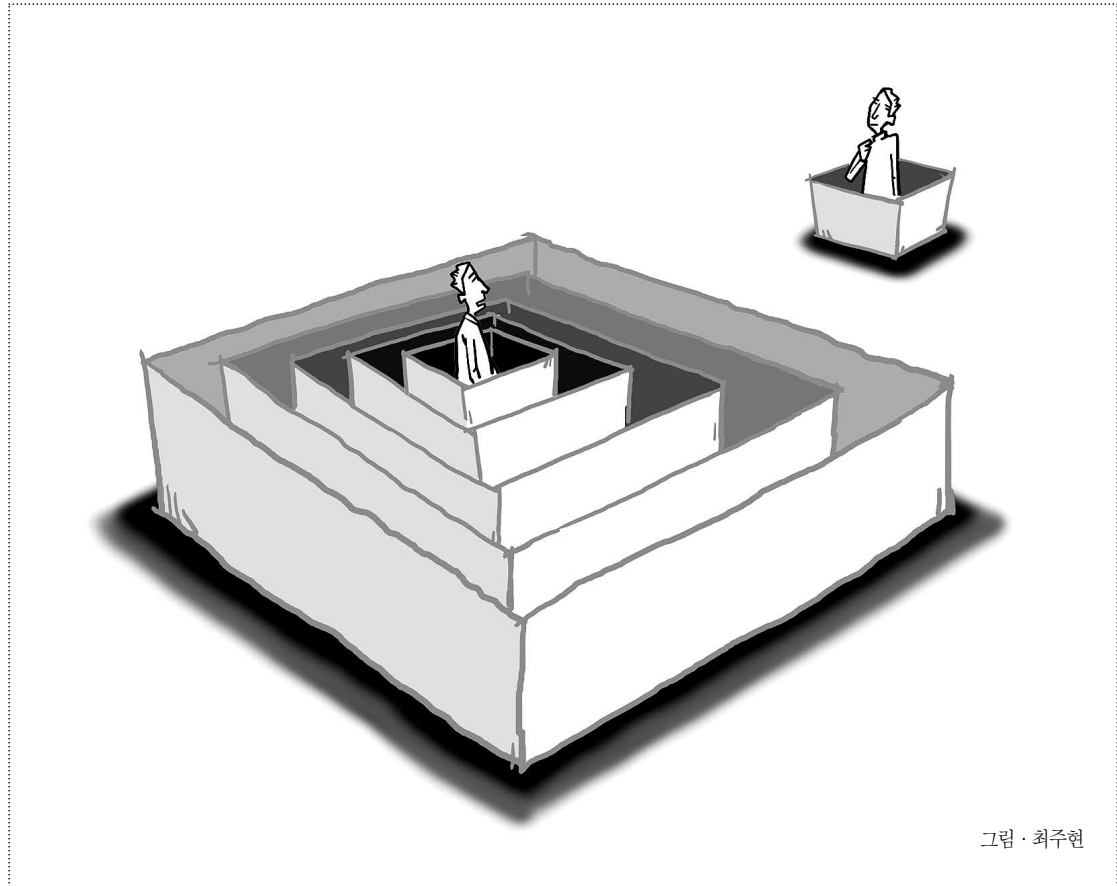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극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남을 미워
하든가 또 자식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말입니
다. 그러니까 더디고 좀 느리고 이런 것은 있을지
언정 그제 없어지지 않는 건 아니라고. 꼭 없어
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해드
리듯이 녹음기에 자동녹음이 됐는데, 이것은 자
동으로 또 거기다 입력을 하면 그 앞서 입력이 없
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잘라도 아니 되고 끊어
도 아니 되고, 아건 아니 됩니다. 입을 꿀음레야
칼로 물 베기죠.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해서 없애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거 소홀히 듣지 마시
시오. 첫째, 이 공부하는 데에 도로아미타불을 만
든다는 그런 이치가 있는 것은 잘됐다, 못했다 또는
옳다 그르다 이런 말을 남한테 하고 자기를 내세
우고 이러한 것이 제일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
에 또 내가 아무리 속이 상해도 내 안으로 놓고 부
드럽게 얘기해주고 부드럽게 행동을 해야만 생
명은 광년을 거치면서 나온 업식이 거기에서 녹게
되고 관습과 업식이 다 녹아야 하늘에서 인정을
받고 해인(海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얻
는다는 이 소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부해가면서
습을 떼어가면서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

합니다. 칠석이라는 것은, 칠성 부처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칠성이라는 것은 내 몸과 더불어
같이, 성자라고 할까? 불성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을 누구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칠석이라
고 하고 칠성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동시에 미래로 자꾸자꾸 가는 겁니
다. 그러니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돌로 보지 않
는다면 칠석과 백중은 돌이 아닙니다. 그리고 백
중이 또 무엇인가? 백중은 우리가 죽어서 모두,
이게 참 말을 하려면 긴데요.

이제 여러 가지로 분배가 된다지만 우리가 죽
어서 말입니다. 사람도 되거나 바뀌어서 짐승
이 사람도 되고, 사람이 짐승도 되고 이렇게 되는
데 왜 우리가 생시 때에 어느만큼 어떻게 살았
느냐에 따라서 갈산지옥이다 화랑지옥이다 이러
죠? 또 무류간지옥이다 독사지옥이다, 이러한 이름들
이 허다 많습니다. 이것을 다 말로 할 수 없어서
드럽게 얘기해주고 부드럽게 행동을 해야만 생
명은 광년을 거치면서 나온 업식이 거기에서 녹게
되고 관습과 업식이 다 녹아야 하늘에서 인정을
받고 해인(海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얻
는다는 이 소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부해가면서
습을 떼어가면서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



천당 지옥도 삶의 보람도 바로 이 자리에 다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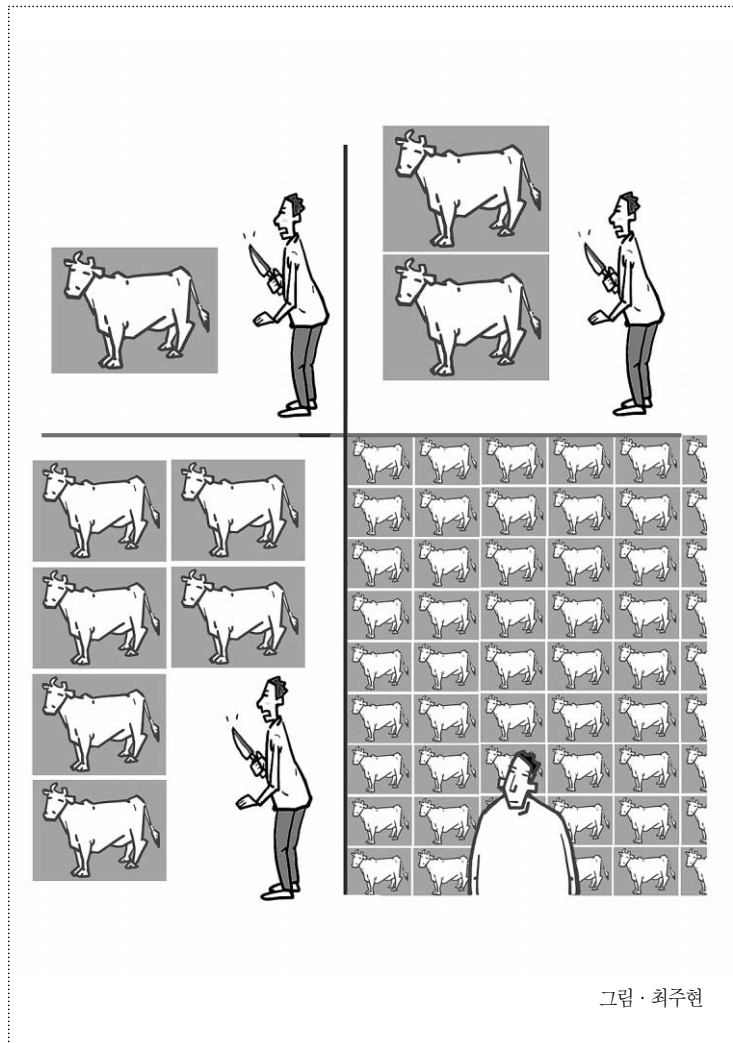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29면에서 계속

두가 자기 인생이라는 것은 생각지 못하고요. 그렇게 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었죠. 내내 젊어서부터 계속 사냥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냥을 나간다는데 부인이 아주 그냥 언짢더랍니다. 젊에 다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보, 오늘은 사냥 가지 마시오, 마시오.” 그러니까 “아이구 참, 뉘 소리를 하는 거야? 한 마리 잡아다가 먹어 야지.” 아, 이라고선 나가거든요. 그대 어떻게 말 할 수가 없죠. 그대 내버려뒀더니 저녁에 죽었다 고 소식이 오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총을 쏘 다 쏘다 하는 것이, 그냥 사냥만 있는 것을 짐승으

로 봐서 쫓아다니는 그 사람이 또 이 사람을 쫓아 오, 그러니까 둘이 다 죽은 거예요. 사냥꾼들 둘이 서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돌을 사자인 줄 알고 쫓아, 그냥 돌이 굴러서 죽기도 하고, 또 어떠한 데는 어린애를 낳아 놓으면 짐승의 혼백이, 영혼이 와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녀도 자식을 길러봐라 하고요. 영혼이 태어나서 보면 무진하게 뛰고 속 썩이고 무진하게 그러는 게 다 그런 과보죠. 그러니까 인과란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소리가 자식만 낳으면 되느냐 이 소립니다. 원수가 태어나도 자식이 좋다고 하겠느냐? 서로 과보가 되서, 업보가 되서 서로 태어나도 좋겠느냐? 그러니까 애만 낳으면 할

게 아니라 애를 낳기 이전에 그것을 천천히, 자기 애와 모든 것을 고하고, 또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놓고 좀 더 착실하고 아주 영리하게 물리가 터진 그런 영령을 내 아들로 짐지해주소서!” 하고 “짐지해주는 것도 녀편이 아니냐!” 하고 거기가 되라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가 실질적입니다. 나는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옛날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미래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현실 얘깁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이렇게 되고, 또 사는 동안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산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면 앞으로 요 세상에 나올 때 이렇게 이렇게 또 살게 되니까 그것은 뭐 독 안에 들어도 면치 못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독 안에서 벗어나라 이 소입니다. 내 몸뚱이 독이니까요. 내 몸뚱이 독 안과 같아요. 통과 같아요. 이 몸뚱

이 하나 아주 그 쾌점스럽죠. 자기 편에는요. 판 사람이 자기를 못 본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쾌점스럽고 그렇죠. 또 자기네가 이렇게 하라고 해도 영 들은 죽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미우니까 “이놈 자식,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그냥 때리고, 그래서 분이 나서 천축집으로 가면 아, 천축집이 역시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여길 가도 그러고 저길 가도 부대끼고 그렇게 자기가 부대끼니까 그 식구가 다 부대끼는 겁니다. 집집마다 말입니다. 좀 살 만하면 이렇게 되고, 좀 살 만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게 또 터지고 저런 게 터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양반들은 ‘왜 이렇게 되는 노릇이 없어? 그저 한 푼 벌면 두 푼 나가려고 아주 미리 작정하고 있구먼.’ 하고 한탄들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만날 마음공부를 지극

하겠습니까? 모두가 비유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다, 남편과 부부기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사시려면 이게, 이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한 철입니다. 한 철! 캄캄 왔다가 한 철 놀다 가는 한 철입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살고 웃고 즐기고 살아야지 왜 그렇게 울며 아프며 복장을 꿩으로 이라고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 이런 거예요. 백종(百種) 때, 왜 백종을 지내느냐는 얘기도 부모가 예를 들어서 닦으로 화해서 이 세상에서 죽고에 떨어졌다. 물고기로 태어났다. 또 소로 태어났다. 뱀 독사로 태어났다. 가지각색으로 다 태어났다. 하는 그런 틀에 끼었다 이런다면, 여러분이 천도재를 지극히 해서 그 몸을 벗게 해주는 것이 바로 백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왜 감히 있던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 때 떠러러 나오죠. 그런 사람과 같이 백종 때는 될 수 있으면 남한테 모함 받아서 들어왔던 사람, 지극하게 다시 마음을 잡아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백종날 다 내보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도재를 세 번 네 번 지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만큼 된 집도 있습니다. 그런 집은 자꾸 이렇게 그 저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이렇게 해야죠. 밋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저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좀 나아지죠. 나아지면서 그 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렇게 해나가신다면 그 부모의 조상들이 모습이 다시 변화해서 인간으로 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변화가 돼도 또다시 그러한 문제를 풀어야 할 때를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요 다음에 또 그와 같은 문제들을 끌고 가야 하니까요.

바깥으로 내서 믿지 말고

오직 자기 마음 안으로 들이대야

안에서 벗어나야 지구에서도 벗어나고, 지구에서 벗어나야 우주 세상에서도 벗어나고, 우주 세상에서 벗어나야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죽어서 편이 아니라, 한 번 죽고 두 번째도 또 죽어라, 세 번째도 또 죽어라 이러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주머니 속에서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동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로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자재 못하고 사는 거죠. 죽이고 먹고 뺏고 이렇게 하는 세상에서 정말 자기 마음을 맘대로 할 수 있다면 왜 남을 죽이고 또 뺏어먹고 이러겠습니까? 남을 자꾸 주고, 이롭게주고 이러죠. 그러니까 현실 자체가 그대로 지금 얘기한 것과 같이 자유이죠. 그 유전성인든 업보성인든 영계성인든 세운 성인든 인과성, 이 모두가 이 자리 현실에 있는 것이고, 현실에서 한 발 한 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 미래가 끝나면 다시 돌아서 또 현실로 오는 과정의 곁을 곁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떻게 걸었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또 나오고 그러니,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게 과거고 현실이고 미래고 간에 흘랑 벗어나야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때로는, 또 이런 게 있죠. 이 공부를 안 하고 돌아간 영령들은 이런 수도 있습니다. 아는 집집마다 기웃거리고 다니고 아는 책을 안 해 요. 자기는 산 절로 생각을 하는데 아는 책을 안

하게 하시라, 바깥으로 끄달리지 마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식과 위로 부모란 말입니다. 자식과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중간에서 편안하게 하고 갈 수 있느냐. 자식들도 그렇게 어긋나가는 자식이 있다면 자꾸 주인공에 지극하게 놓아야 되겠죠. 그 자식의 주인공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 주인공과 내가 둘이 아닌데 주인공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자꾸 놓으면서, 또 들어오면 부드럽게 해줘야 들어오지 그렇지 않고 “오늘의 새끼야, 그러나 마나. 어떡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니가 이거는 더 빳나가요. 그냥 들어오고 싶지가 않아요.

또 남편도 그렇고 부모도 그래요. 부모도 마음 거슬리지 않게 해드리고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거슬리는 말씀 하시면 “예, 그렇게 하지요.” 하고 나중에 들어가서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합쇼, 하고 거기가 놓고서는 잘되게끔 돌려야 되는 거죠. 또 부모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한 다 하더라도 잘되라고, 마음으로는 잘되라고 하는 거지 못되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 마음이 고마워서라도 “어머님, 그렇게 하지요.” 하고서 거기가 놓고 어머니가 잘되라고 하신 거나 잘되야 좋다고 하신 또 율동성 있게 그렇게 하면은 양쪽이 다 편안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머니는 꼭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걸 그렇게 말을 한다고 아, 이라고 대드니 어머니가 마음이 편안하

와 감히 있던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 때 떠러러 나오죠. 그런 사람과 같이 백종 때는 될 수 있으면 남한테 모함 받아서 들어왔던 사람, 지극하게 다시 마음을 잡아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백종날 다 내보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도재를 세 번 네 번 지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만큼 된 집도 있습니다. 그런 집은 자꾸 이렇게 그 저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이렇게 해야죠. 밋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저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좀 나아지죠. 나아지면서 그 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렇게 해나가신다면 그 부모의 조상들이 모습이 다시 변화해서 인간으로 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변화가 돼도 또다시 그러한 문제를 풀어야 할 때를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요 다음에 또 그와 같은 문제들을 끌고 가야 하니까요.

하어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살아 가는 게 말입니다.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지만 그게 아니죠. 하다못해 내가 공씨 얘기를 가끔 하죠. 무찌 얘기도 하구요. 이제 무찌 씨이 말입니다. 씨이 없어지면 그만이지 이러지마는 그 종자가 있어서 또 심어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 그만 이 어땠습니까? 영원토록 돌아가야죠. 그러나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공씨가 팔씨가 될 수도 있고, 팔씨가 공씨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상상의 사람 종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하(下)의 종자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자유자재권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린 거죠.

(다음 호에 이어서)

* 위 법문은 1995년 8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 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쾌한속편 신비의은행석

건강한하루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북한에서는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놓으면 물이 차는 배를 뒤집고 헹궈주면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물이 차는 병을 뒤집고 헹궈줍니다. 고급난방 이의의 죽어가는 것도 다 살릴 수 있어요. 배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저체, 고혈압 전신 등이 저유됩니다. 그리고 기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심하게 표를 끌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면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손발이 자주 붓는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 목걸이, 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이 붓거나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기를 끌고루 전달, 심장박동원활, 신진대사촉진, 신경 및 피가 맑아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아요.

은행석 108염주, 순목압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 현지 많은 스님, 불자들의 사용 후 기적같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금강센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 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관상학특강반모집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4시)

▶ **지선법사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시주로 볼 수 없는 찰색! 특강반에서는 기초와 이론을 속성강의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취업보장)

“ARS 대동청보통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월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근처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현재 미달 접수 3명만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8**

지선법사의 운영 특별상담 접수부

특별강의 : 사주학, 기문문답

불교인들의 만남, 불멸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남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그동안 불행의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불자님의 격려로 연구원을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울유년은 모두의 가슴에 꿈과 희망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자님께서 변함없이 이끌어주시는 기원과 격려 더욱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의 기쁨이 오신 선물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원장 이영숙 회장

■ 대추, 초 · 재운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 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현대결혼연구원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고급과정 ● 맥진반 ● 사암침술반 ●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체내경맥진법, 맥조절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배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 2005. 9. 5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주 · 야간 : 3개월 원생)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 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있어, 평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 유일의 강좌로 년론과 월론은 물론 일론까지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9월 5일 개강

사암침술학회

· 서울 : 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2)2267-9136, 011-307-2975

· 부산 : 부산 동구 좌천동 567-2 다전리치점 1004호 (좌천역 1번 출구)

문의 : 018-312-7110